

● “남을 심판하지 마라. 그래야 너희도 심판받지 않는다.”

(마태복음 7장 1절)

비판은 자신도 남도 고통이 되게 한다

비판은 남도 죽이고 자신도 죽이는 백해무익한 행위이다. 비판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. 순조롭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비판을 삼가야 한다.